

데스크 시국



박치경 사회부장·부국장

이례적이다. 최근 광주시교육청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이한 현상’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선거가 1년 남게 남아있지만 장외전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논란은 지난달 말 박표진 전 부교육감이 사퇴하며 내뿜은 쓴소리에서 촉발됐다. 사실상 선거 출마를 밝힌 그는 장외국 교육감의 광주교육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박 전 부교육감은 광주지역 학생들의 학력저하 우려와 함께 직원 간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나름대로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법한 민감한 부분을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부교육감의 선공에 침묵하던 장 교육감은 뒤늦게 대응했다. 그는 수능 응시자 대비 유명대학 합격률을 제시하며 여전히

학부모에게 물어보라

‘실력 광주’의 위상을 지키고 있다고 항변했다. 소통 부재라는 지적은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맞받았다.

전례없는 교육감과 전 부교육감의 설전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기선 공방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전까지는 볼 수 없었던 광주 교육계의 난기류 형성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때 이른 선거논란 ‘빌미’

먼저 꼽히는 것은 ‘빌미론’이다. 도덕성을 가장 큰 명분으로 내세웠던 진보교육감 체제에 상처가 생겨 일제감치 대항마의 출현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이 공통으로 주창하는 가장 큰 슬로건은 인성교육으로 집약된다. 과거 일부 보수교육감 시절 불거졌던 실적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올바른 교육을 통해 학생 인격을 형성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학생들의 고른 지적수준 향상을 통해 ‘인생 불평등’을 줄이는 기초를 다지겠다고 공약했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밑거름은 철저한 준비와 자기 헌신 같은 덕목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동안 광주

시교육청 주변에서 불거진 적잖은 물의와 마찰은 애초의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

장 교육감은 취임 이후 ▲학력신장을 위한 다양한 시책 ▲비정규 직원의 신분 안정 ▲부진학생의 학력제고 등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인사 때마다 꼬리를 무는 측근 챙기기 논란 ▲공립교사 특채 비리 ▲학교폭력 기제 여부를 둘러싼 갈등 ▲공사립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고교 강제배정 잡음의 그림자에 ‘수고’는 가려졌다.

박표진 전 부교육감의 출마와 시 괴역은 본인의 소신에 따른 것이겠지만, 이처럼 부정적인 교육행정이 부추긴 측면도 적지 않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내년 선거와 맞물려 벌어지고 있는 난맥상을 들추는 것에 색안경을 쓰고 볼 수도 있겠지만 누구 편을 들 생각은 추호도 없다. 신학기를 맞아 다시 희망을 품고 자녀교육에 매달리는 학부모의 절박한 심정을 전하려는 것이다.

사회 각 분야에서 뒤진 광주·전남지역이 거의 유일하게 내세운 만한 비교우위가 바로 ‘인재’들이다. 따라서 대부분 학부모인 지역민들은 일선 학교가 자녀들을 잘 길고 닦아 제발 지긋지긋한 ‘열등 국민’에서 벗어

나게 해달라는 바람이다. 이처럼 하루하루 절박하게 자녀의 학교생활을 지켜보고 있는 학부모에게 교육청이나 학교의 굵은 소식은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불러온다.

바꿀 수 있어야 진정한 진보

물론, 진보교육 체제가 추구하는 건전한 전인교육을 나무랄 사람은 없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자녀의 성적향상을 우선하는 경향이 강해 두 개의 가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아이들을 교실에 묶어놓고 문제풀이를 많이 시켜 좋은 대학 합격자를 다수 배출하는 과거의 방식을 지양하는 진보교육의 목표달성은 그만큼 어렵게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 광주시교육청도 조금 더 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방법론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개선하는 게 ‘진정한 진보’의 자세다. 그리고 때이른 선거논란에 발 들일 필요는 없다. 최선을 다한 후 유권자인 학부모들에게 선택 여부를 물어보면 된다.

/unipark@kwangju.co.kr

은펜칼럼



박행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황혼’에는 자연의 황혼과 인생의 황혼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1. 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때, 2. 사람의 생애나 나라의 운명 따위가 한창인 고비를 지나 쇠퇴하여 종말에 이른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한다.

이육사의 ‘황혼’이라는 시는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내 고향의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오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나.’ 그가 노래하는 것은 인생의 황혼이다. 비록 한창 고비를 지났지만 아직도 정성된 마음으로 맞아들일 대상이 남아있다. 황혼이 곧 종

황혼에 진정한 사랑을~

말이라는 부정적인 관념, 특히 외로움으로 대표되는 고향의 커튼을 걷고 인생을 다시 보아야 한다. 모든 사물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고 삶이라는 본질은 달라진 것이 없다.

딱히 몇 살부터를 황혼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인생은 60부터’라는 말과 상관없이 있어 보인다. 황혼기에 거둬서 말고 열심히 살라고 격려하는 뜻에서 생겨난 말일 것 같다. 이 황혼기가 머지않아 거의 30년 기간이 될 것인데 “이처럼 긴 시간들을 어떻게 아름답고 의욕적으로 보낼 것인가?”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질문이다.

결혼식의 축가로 자주 불리는 정두영 작곡의 ‘사랑은 언제나’는 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에 곡을 붙인 것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리고 전 생애를 통하여 추구해야 할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 내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며 뜻하게 보듬는 사랑이다.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며 특히 황혼기에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이러한 사랑이다.

로버트 윌리가 쓴 ‘Seniors in Love’는 황

혼기의 독신자들에게 성숙한 사랑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준다. 저자는 황혼은 얻어볼 수 없는 겨울이 아니고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라고 말한다. 이 귀한 시기를 체념하고 패배자처럼 살지 말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풍성하게 살라고 권한다. 사랑은 청춘의 전유물이 아니며 황혼이아말로 진정한 사랑이 가장 필요한 때임을 일깨워준다.

그는 황혼기에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저울질하며 계산하지 말며 자기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사랑을 경계하라고 말한다. 따라서 상대방이나 자신을 희생하지도 말라고 한다. 단순한 여성의 동반자로 만족하지 말고 영적 여정에 서로에게 의지하고 격려하며 상대의 능력을 북돋아주면서 함께 일하는 동지가 되라고 조언한다.

외롭다는 이유만으로 황혼결혼을 할 경우, 기대와 달리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행복한 황혼결혼의 조건은 절대 사랑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경이다. 자신의 행복보다 상대의 행복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상대에 대한 배려를 책임이 아니라 특권으로 받아들이 수 있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황혼결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자녀들이다. 많건 적건 각자의 재산문제가 개입되어 있고, 새로운 부모 의료비를 포함한 노후를 떠맡아야 할까봐 걱정이 된다. 내 어머니나 어머니를 뺀다는 것 같아서 괜히 사귀는 대상이 탐탁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자녀들은 결국 부모의 행복을 위하여 대부분 수용하게 마련이다.

얼마 전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본 ‘호프 스프링즈’는 메릴 스트립이 주연하는 황혼 부부의 이야기이다. 결혼 30년차 부부의 두 형태의 삶, 각방을 쓰며 답답하다 못해 따분하게 사는 전반부 삶과 사랑을 회복하고 행복해 하는 후반부 삶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따 말걸 개봉될 예정이다. 청춘의 사랑이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이라면 황혼의 사랑은 화롯불같이 불씨를 품고 안으로 타오르는 열정이다. 황혼의 진지한 사랑을 이해하고 축복하기 바란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김은선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숲에 들어서면 특유의 향기가 있어 기분 좋아진다. 이는 나무들이 뿜어내는 피톤치드때문이다. 피톤치드는 식물이 주변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출하는 향기 성분으로 나무가 병원균이나 해충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또는 바람이나 동물에 의해 상처를 받았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발산하는 항균물질이다. 일반 항생제보다 적용 범위가 넓고 인체에 부작용이 없어 각종 질병에 효과가 좋은데, 특히 암환자의 면역기능을 활성화시키

건강과 치유의 산, 무등산

고 아토피질환과 같은 환경성 질환에 좋은 뿐 아니라 우울증 환자의 자살률 저하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숲 치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피톤치드는 주로 침엽수에 많이 들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편백나무, 구상나무, 삼나무, 소나무가 으뜸이다. 그런데 우리 무등산은 소나무, 편백나무, 구상나무처럼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하는 침엽수가 널리 분포돼 있어 치유의 숲이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2011년부터 2년에 걸쳐 무등산에 있는 주요 등산로 주변을 중심으로 11곳을 선정하여 숲 치유 기능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40년 이상 된 침엽수가 주종을 이루는 제 1수원지 주변 편백나무와 삼나무 숲은 여름철 피톤치드 농도가 1900~2080 ppbtv로, 치유의 숲으로 널리 알려진 장흥 우드랜드와 비슷하였고, 장성 죽림산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측정할 계절이나 시간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 같은 결과는 제 1수원지 편백나무와 삼나무 숲이 수원지 주변에 있어 수목의 생장에 유리하고 지형적으로 울퉁퉁 들어간 계곡에 위치해 있어 방출된 피톤치드가 대기 중으로 바로 날아가지 않고 숲 속에 오랫동안 머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곳 외에도 침엽수가 많이 분포돼 있는 관음암(1331), 바람재(950), 송풍동(564), 토끼동(554), 장불재(553)와 여러 수종이 섞여있는 청풍림(742) 역시 피톤치드 농도가 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숲속의 공기가 맑고 깨끗한 것은 나무의 광합성 작용에 의해 방출되는 산소와 더불어 음이온이 많기 때문이다. 제 1수원지 부근 삼나무림과 편백림에서 음이온을 측정할 결과, 여름철 측정치가 2200~2400 개/cm로 자연치유력과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있는 700~1000개/cm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무등산은 등산하기에도 더없이 매력적인 산이지만, 가볍게 걷는 것만으

로도 우리 몸의 건강이 증진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치유기능 또한 매우 우수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더욱이 도심 가까이 있어서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쉬이 들러 일상 속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몸과 맘을 가볍게 할 수 있으며, 질병치유가 필요해 숲을 찾는 사람들도 집 가까운 곳에서 얼마든지 치유의 기쁨을 향유할 수 있으니 우리에게 무등산은 더 없는 축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무등산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건강 요소를 시민들이 손쉽게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등산이 “건강과 치유의 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더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인자에 대한 조사도 계속할 계획이다. 광주시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도 무등산에서 건강과 행복을 찾기를 바라며, 민주·인권·평화에 바탕을 둔 무등 정신이 세계로 뻗어나가게 그날을 기대해 본다.

이렇게 생생한 체험을 하고 쌀 소비의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일이 많되지만 한다면 우리 쌀의 소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고속도로는 가족단위로 엄마 아빠 손잡고 오가는 어린이들이 많으므로 그 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본다. 우리 학생들이 우리 농촌의 중요성도 더 크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므로 농정당국과 농민단체에서 적극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남민배·광주시 광산구 고통동

社說

‘안철수 신당’에 호남이 주목하는 이유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이틀 전 귀국 기자회견에서 지난 대선 패배에 대해 사과한 뒤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위해 어떤 가시밭길도 가겠다”며 오는 4월 실시되는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어 “국민을 위해 군림하고 편을 갈라 대립하는 ‘높은 정치’ 대신에 국민의 삶과 마음을 중하게 여기는 ‘낮은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권에 대한 진단이자 ‘안철수 식 새정치’의 천명인 셈이다.

안 전 교수가 예상보다 빨리 정계에 복귀하게 된 데는 기성 정치권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크다. 여야와 대선 후보 모두 모두 앞다퉈 정치 쇄신과 개혁을 약속하고서도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해 4·11 총선과 대선에서 잇달아 패배했음에도 혁신과 쇄신이 당권 경쟁을 둘러싼 ‘세력다툼’만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보다 안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냈던 호남으로서 안 전 교수의 정치 행보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최근 미디어 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분기지로 여기는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 지지율이 34.4%로 민주당 24.1%에 비해 크게 앞서고 있다는 게 이를 말해준다.

우리가 현실로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호남 출신 인사 소외도 이에 더 무게가 실릴 개연성도 높다. 안 전 교수가 국회 진출과 세력화를 통해 민주당과 비교 우위에서 차기 대선에 당선될 유력시되는 주자로 우뚝 선다면 호남사람들의 힘은 더 실릴 것이다. 호남민들은 정치적 고비 때마다 항상 바른 선택을 해왔기 때문이다.

안 전 교수는 국민과 약속했던 정치 쇄신과 선진화를 이뤄내는 정치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그레아만 국민적 지지와 함께 차세대 리더를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엄마의 극단적 선택, 애들이 무슨 죄인가

조울증을 앓던 40대 여성이 어린 자녀 2명을 데리고 아파트에서 투신,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모의 극단적 선택에 자녀까지 희생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우리 사회의 인명경시 풍조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극히 우려스럽다.

12일 오전 8시께 광주시 화정동 모 아파트 14층에서 40대 여성이 아홉살 아들, 다섯살 딸과 함께 투신해 모두 숨졌다. 이들이 탄 엘리베이터 CCTV에는 다가를 참극을 전혀 예상치 못한 듯 발랄하기만 한 아이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인 생명의 존엄성을 환기시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자살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실업·빈부격차 해소를 비롯해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등 범국가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자살이 개인이 아닌 사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예방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선 30대 어머니와 세 자녀가 숨진 채 발견됐는가 하면 지난 2009년 12월 광주에서도 30대 부부가 10대 아들·딸과 함께 목숨을 끊었으며, 같은 해 4월 해남에서는 일가족 3명이 자살하기도 했다.

자살 증가는 인명경시 풍조가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방증이다.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다’는 식의 사회적 병폐에,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여겨 동반자살하는 그릇된 모성까지 더해 반인륜적 범 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인 생명의 존엄성을 환기시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자살 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실업·빈부격차 해소를 비롯해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등 범국가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자살이 개인이 아닌 사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예방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조선시대에는 서적이 거의 없었다. 기본적으로 책의 공급과 수요가 양반 사대부 계층에 집중됐고, 그마저도 정부에 의해 통제됐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지식과 정보를 전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서적이었는데, 조선왕조는 정책적으로 서적의 설립을 금하거나 억제했다. 지식의 공급과 유통을 정부가 관장한 셈이다.

물론, 책을 파는 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영조시대 서소문에는 ‘약계책방’이, 그리고 선조 때는 남원에 ‘박고서사’라는 서점이 세워지기도 했다. 하지만, 워낙 책방이 없어서 서점 개설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곤 했다.

명종 시절 윤춘년이라는 사람은 “온갖 물건을 매매하는 점포는 다 있지만 유독 서적을 매매하는 곳이 없으므로 서점을 세우자”는 주장을 했다. 그 때로는 “서점이라는 제도는 지난 200년 동안 없었던 것인데, 새로 그 제도를 만들어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고 되레 윤춘년을 비난했다.

서점이 이렇다 보니, 책은 귀하고 값은 비쌀 수밖에 없었다. 중국에서 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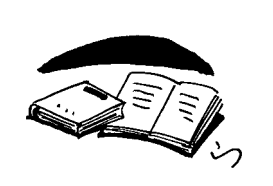
지는 이야기지만, 너무도 유명한 천자문에는 책을 구하지 못해 고생스럽게 공부하는 가난한 선비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탐독완사 우목낭상(耽讀蕪山 寓目囊箱)이라는 구절이 그것인데, 중국 후한의 저명한 학자인 왕충의 사연이 배경에 깔려있다. 집이 가난해 책을 사지 못한 왕충은 늘 낙양의 저자거리에서 서

점을 돌아다니다 원하는 책을 보면 책장을 뒤적이는 척하며 내용을 모조리 외워버렸다는 내용인데, 책은 사고 싶지만 주머니가 비어 서점의 책만 만지작거리는 가난한 선비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오늘날에는 대형서점과 인터넷 서점이 붐을 지만 유독 서적을 매매하는 곳이 없으므로 서점을 세우자”는 주장을 했다. 그 때로는 “서점이라는 제도는 지난 200년 동안 없었던 것인데, 새로 그 제도를 만들어 권력을 독점하려 한다”고 되레 윤춘년을 비난했다.

서점이 이렇다 보니, 책은 귀하고 값은 비쌀 수밖에 없었다. 중국에서 전해



전자책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 |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 |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63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
| 편 집 부 2200-649 | 문화생활부 2200-661 | (F A X 222-8005) | (F A X 222-0195) |
| 정 치 부 2200-612 | 여론매체부 2200-621 | 광고이케팅국 2200-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대표 FAX 222-4918) | 체 육 부 2200-697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
| 사 회 부 2200-616 | 사 진 부 2200-693 | 디지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대표 FAX 222-4267) | 조 사 부 2200-571 | 프로젝트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